

또 하나의 시작을 위하여

「학력사항」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경력사항」

-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청심사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소민합동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삼 화(金三和)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시험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당락의 희열과 좌절속에서 점점 성숙되어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이제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어린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겨우 떼어놓기 시작한 이 걸음으로 아직도 요원한 길을 힘껏 걸어나가야겠지요. 지난 세월 저의 보잘 것 없는 기억을 활자화하여 놓는다는 것이 무척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항상 그리워지는 법이니...”라고 읊은 푸쉬킨의 삶의 한 구절이 이 순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과정보다는 결과에 의하여 평가되지만 당사자에게는 공부한 과정에 고통과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만큼 과정도 중요한 것이겠지요.

I. 사시에의 입문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충남 대천에서 태어난 저는 그곳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고 대전여고에 진학하면서부터 객지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도시 아이들에

게 뒤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고 3학년이 되어 동생이 대전여고 진학하게 되면서부터 할머니께서 오셔서 뒷바라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 후 대학입시에서의 실력은 부모님과 주위분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렸고 저 역시 처음으로 가슴이 타는 듯한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연로하신에도 불구하고 대전까지 오셔서 뒷바라지해주신 할머니께서는 더욱 죄송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재수를 할 것인지 후기대학에 갈 것인가를 놓고 갈등을 하다가, 재수를 하더라도 일단 한번 후기대학 시험이나 보자는 생각으로 사립대를 갈 수 없는 형편상 사립대 행정학과에 원서를 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수석으로 합격이 되었으나 대학입학후에도 후기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느끼게 되는 위축감과 방황속에서 헤매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1학년초에는 재수를 할 생각을 했었지만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시험에 대한 압박감의 저를 자꾸만 괴롭혔습니다. 결국 자기의 길은 자기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재수를 포기하고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간직하고 있던 고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전여고에 합격했을 때 잔치하지 않느냐는 주위 분들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고시 합격도 아닌데 무슨 잔치를 하느냐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쩔듯이나마 고시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시가 물론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지만 대학 시절을 어떠한 목표가 없이 그러저럭 보낸다는 것은 생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입학한 과가 행정학과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학년때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고 1학년 동안은 영어와 교양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그 후 ALA(AFKN Listening Association)라는 씨클에 들어가 영어공부를 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 계속되었던 테모는 급기야 휴교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휴교령이 내린 뒤에는 대전과 대천을 오가며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9월에 휴교령이 풀려 개강이 되고 얼마 후에 있었던 행정고시 1차에 입학동기의 합격은 “나도 고시를 해야지”하는 마음만 있었지 과목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던 당시의 체계는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먼 곳에 있는 걸로만 생각했던 고시가 제게로 성큼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도 조금씩 고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0월 중순쯤 되어 선배님들께 행시를 하려면 경제학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조순 교수님의 경제원론을 구입했습니다. 행정학이니까 당연히 행정고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읽을 때는 좀 알겠는데 덮고 나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공연히 시간만 낭비한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2학기에 교양으로 경제원론강의가 있었지만 앞부분만 조금 나가다 말았기 때문에 거의 혼자서 하는 셈이었습니다. 물론 한번 읽고 모든 것을 알려고 했던 저의 태도가 더욱 문제였지만요.

이렇게 되니, 자꾸만 사법시험에 대한 미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도 행정고시보다는 사법시험을 더 하기를 바라셨고 주위에서도 사시가 행시보다 공부량이 많지

만 더욱 유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검사 친구분
에 대한 얘기와 큰아버지께서 사시를 준비하신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게는
행시보다 더 친근감이 있는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사법시
험을 준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법학과가 없었던 저희 학교에서 사시를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독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4학년에 사시 1차에 합격한 선배가 한 분 계셨지만 거의 학교에 나오지 않
아 사법시험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직 1학년이었고 시간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서관에 있는 고시잡지를 통해 사법시험의 과목과 기본서 그리고
공부방법 등을 알아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고시잡지에 실린 합격기를 읽으면서 나
도 꼭 합격해야지 하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II. 도전

그러는 사이에 12월이 되었고 기말고사도 끝나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관공직 교수
님의 민법총칙과 황산덕교수님의 형법총론을 사가지고 대천집으로 내려갔습니다. 12월까
지는 집에서 틈틈이 책을 보다가 81년이 되면서부터 동생과 함께 국립도서관에 다니며 공부
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고사하고 한자를 눈에 익히기에 바빴습니다. 2학년이
되면서 민법총칙, 헌법, 행정법, 형법 등의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60학점을 이수해야 했
기 때문에 행정학과였으나 소송법을 제외한 법과목의 강의를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1981년
이 되면서 사법시험 합격인원이 300명으로 증원되자, '하나님은 아직 내편이구나'하고 마치
합격이라도 한 것처럼 쾌재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3월말경에는 새로 들어간 국민윤리를 제
외한 2차 과목 기본서를 전부 구입하여 전과목을 1회독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
랐으나 한번이라도 2차 전과목의 맛을 보았다는 데서 조금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2학때에는 학교 행사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4학년이 되어 공부를 하려
면 조금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시간 확보는 그
리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될 때까지 민총, 형총, 헌법의
내용을 어렵듯이나마 머리에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집에 가서 하려고 하였으
나 진도가 제대로 나가지 않아 다시 올라와 학교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2학기가 되면서, 고시준비를 하는 몇몇 선배 언니들과 함께 여학생을 위한 고시반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도서관 1층 한쪽에 고시반이 있었지만 남학생들만이 이용했고 여
학생들은 도서관의 열람실을 이용했었는데, 매일 많은 책을 들고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
었습니다. 그래서 고시에 뜻이 있는 여학생들의 연서를 받아 학장님을 뵈고 말씀을 드렸더
니 쾌히 승낙하시고 교문 옆 옛 도서관 건물 2층에 방을 하나 마련해 주셨습니다. 행시·사

시·CPA 등 서로 공부하는 분야는 달랐지만, 모두들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연탄을 피워 그것을 가느라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부할 수 있는 방을 얻었다는 기쁨과 처음인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선구자적인 기분으로 그런 것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81년 12월이 되고 기말고사가 끝나면서 내년에 있을 1차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3학년에 1차, 4학년에 2차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점에 가서 객관식 문제집을 구입하여 서서히 1차를 시작했습니다. 기본 3법과 국사, 문 화학사는 그런대로 할 것 같은데 외국어와 경제학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은 대세에 따라 국제사법을 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어는 영어를 하면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불어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경제학은 조순 교수님 교과서 외에 박홍립 경제원론을 구입하고, 그 당시에 많이 보던 정규백(상·하) 객관식 문제집을 보기로 했습니다.

Ⅲ. 시련

그러나 1982년이 되자 1차가 3월에서 6월로 연기된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정말 6월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자 괜한 여유가 생겨 그동안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국민윤리교과서를 구입해서 읽고, 다른 2차 과목도 공부하면서 겨울방학을 보냈습니다. 6월에 있었던 1차는 나름대로 준비도 열심히 했고, 어느 정도 자신도 있었는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또 실패. 동생은 이제 떨어지는 연습은 그만하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엄연한 그리고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시험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당락의 희열과 좌절속에서 점점 성숙되어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머리도 식힐 겸 집에 내려가 열흘 정도 쉬고 올라왔습니다.

여름에는 고시반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행시를 준비하던 친구들과 함께 중앙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공부했습니다. 아침 일찍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도서관에 가 밤늦게 마지막 그룹에 끼여 도서관을 나설때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그 해 여름을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던 민소법, 어음수표법, 물권법 등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서 더운 줄도 모르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름방학이 거의 지나 8월말경에 유행성 결막염에 걸려 안과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눈이 괜찮아질 때쯤 해서는 생손을 앓아 세수도 제대로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된 병마는 11월에 가서야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3학년 2학기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앓다가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겨울방학이 되었고 몸이 아팠던 관계로 더욱 집이 그리워져 책을 싸가지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공부량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조금

씩 나태해지기 시작하여 하루 10시간 확보도 어려운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추운 겨울에 다시 서울로 올라올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그냥 개학이 될 때까지 집에 눌러 있었습니다. 3월에 서울로 올라와 국민윤리, 행정법, 헌법 등을 단권화하고 민소법을 1회독 했습니다. 이제는 4학년이 되었으니 이번엔 1차마저도 떨어지면 안된다는 생각에 4월이 되면서 1차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 공부한 것이 있어서 조금은 수월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며칠 시간을 내어 형법을 단권화하면서, 서브노트까지 하고 나니 형법의 윤곽을 확연하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제 수험기간 중 가장 열심히 공부한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하루에 15시간 정도를 공부에 투자하려니 몸이 무척 쇠약해졌고 저녁에 집에 가면 빙빙거릴 정도였습니다. 의지의 한계가 오자 절대자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자 1, 2학년 때 큰덕에 있으면서 교회에 다니던 큰덕 친구들과 함께 마지못해 가끔씩 다니다가 그 이후로는 거의 발을 끊다시피 했던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과의 친구가 성경을 공부해 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이신 여교 선배님 한 분을 소개받고 일요일에 예배가 끝난 뒤 1시간씩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여러 군데 있었으나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1차는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갔으며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발표한 합격자명단에 제 이름이 끼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준비가 충분치 못해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4일 동안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2주일 정도를 쉬 뒤 내년의 2차를 대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족하다고 느낀 소송법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2차는 예상했던 대로 불합격이었지만 남의 다리만 굵은 행정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락을 넘겨 내년에는 꼭 합격하리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형법의 점수는 무척이나 고무적인 것이었습니다.

10월이 되면서부터는 단권화가 되어 있지 않은 과목을 단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권화 작업이 끝나자 졸업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과 수석졸업이라는 소식을 교수님께 듣고 행정학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가 수석이라고 생각하니 과친구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때 노트정리를 해서 보여 주었던 은혜언니와 용숙이가 고마웠습니다.

IV. 좌절의 늪에서

졸업을 하고 나니 시험이 4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이 너무 멀어 동생과 떨어져 학교 앞에 따로 방을 얻고 학교 도서관에 고정석을 정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자율화가 발표되면서 학교는 데모의 열풍속으로 들어갔고, 연일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시험이 다가오자, 긴장탓인지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도서관이 수리를 위해 문을 닫는 바람에 그 더운 여름을 고시반에 가서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6월 말경에는 동생이 와서 식사준비를 해주었습니다.

경기대에서 치룬 2차 시험은 자리가 창가에 있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었으나 무척 더웠습니다.

첫날 국민윤리에서 얼마 전에 출제되어 최종 정리할 때 제외했던 민족화합민주통일 방안이 나와 당황했으나 무사히 넘겼고, 헌법 역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둘째날도 상법의 보통거래약관을 제외하고는 그런대로 썼으나 복병은 3일째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민법은 케이스문제의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고심했고, 민소법 역시 과락만 면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써 나갔습니다. 마지막 날도 그리 만족스럽게 쓰지는 못했습니다.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그동안 소홀히 했던 영어를 공부하면서 보냈습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공부한 대가가 이런 것인가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졸업까지 한 나는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생각도 나지 않았고, 부모님께도 면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본 점수는 평균 55점 정도로 커트라인보다 6점 정도가 높았으나 민법이 과락이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에 다시 공부하기로 결정은 내렸으니 공부가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의 능력이 의심스러워졌고, 능력의 한계가 온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여고때 친구들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용문산으로 놀러도 가고, 인천으로 바람을 쐬러 가기도 하면서 두어 달이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늦가을 복설이의 행시합격은 여학생 고시반이 생긴 이후 처음 맞는 경사였는데 무척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의 나약함에 슬펐습니다. 이상두 교수님께서서는 용기를 잃지 말고 건강에 유의하면서 재도전하면 꼭 합격할 것이라며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패의 아픔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보낸 시간이 아까워 12월이 되어서 집 가까이에 있는 사설 독서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V. 서광이 비치고

1985년 1월 1일 0시에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교회에 가서 새해의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난해에 개정된 상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법개정부분과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도 보충하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공부에 열을 올렸습니다.

또 공부하는 틈틈이 성경을 곁에 두고 읽었고,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고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라면 가게 해 주옵소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3월 중순부터는 1차의 컷라인이 높기 때문에 1차에서 또 떨어지면 모든 공부가 헛수고라는 생각에 경제학, 불어를 틈틈이 시간을 내서 1회독 했습니다. 4월이 되면서부터는 1차에 집중하여 50여일 투자했습니다. 5월 19일에 있었던 1차 시험에서는 오전에는 그런대로 치루었으나, 오후에 국사·문화사의 최종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국사가 너무 난해하여 식은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이틀을 쉬 뒤 2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차가 불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생각으로 2차 준비에 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상문제도 뽑으면서 공부했으나, 이번에는 그럴 시간이 없어 단권화해 놓은 본서를 위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갔습니다. 원래 속독이었기 때문에 1차발표까지 3회독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시험은 단국대에서 보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 시험장에서의 각오가 새로웠습니다.

첫날, 국민윤리에서는 원효사상, 일심사상, 화쟁사상, 쟁토사상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어서 당황했으나 다른 사람들도 같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썼습니다. 헌법은 큰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고심했고, 작은 문제들은 그런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둘째날, 행정법에서 '의무이행확보수단'은 지난해 박운흔 교수의 교과서에 새로 들어간 내용이라서 복사하여 노트에 끼워놓고 깜박 잊고 보지 않아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수업 시간에 들은 기억을 살려 최선을 다해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상법은 주식회사의 의사 결정에서 주주총회이사회만 쓰고, 대표이사는 빼먹었으며, 2년 동안 수표에서 출제되어 설마하던 수표부분이 또 출제되었으나, 평소에 공부한 내용의 기억을 살려 법전을 참조해서 썼습니다. 이 문제를 쓰면서 지난해에 출제된 문제라도 또 출제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날, 민법은 지난 해 과락이었기 때문에 무척 걱정되었으나 큰 문제 케이스는 어느 정도 논점을 감 잡을 수가 있었고 작은 문제도 큰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소법은 24회에 출제되었던 것이 또다시 나와 정리가 덜 되어 고생했습니다.

3일 동안 시험을 끝내고 나니 몸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고 일어나서 공부할 생각으로 집에 가자마자 곧 자고 10시경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고도 없이 정전이 되는 바람에 촛불을 켜거나, 자꾸 졸음이 쏟아져 그러다가는 불을 낼 것 같아 잠깐 자야겠다고 생각하고 잔 것이 아침 7시까지 자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는 형법과 형소법은 한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허둥대며 시험에 임했고, 다행히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시험을 끝내고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다시는 이 시험을 치르러 가지 않게 해주기를 빌었습니다.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법이 좀 불안하기는 했지만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기로 하고 기도했습니다. 9월 29일에 알아본 결과는 합격이었고, 얼른 그 소식을 부모님께 전화해 드렸습니다. 312명이 2차에 합격해 작년보다 3차의 부담은 적었으나 점수를 모르는 채 3차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발표까지는 또 불안했습니다. 기본 3법을 2회독, 기타 2차 과목을 1회독하고 3차 시험에 임했습니다. 두분의 면접위원께서는 저의 신앙과 민법에 대해 질문하셨고, 이튿날의 집단토의에서는 6명이 한조가 되었으며, 국난극복사례와 나의 각오가 주제로 나와 큰 어려움없이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1월 14일에 합격자 발표가 나고 기뻐하시는 부모님과 교수님, 그리고 친구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VI. 맺음말

이 글을 쓸 수 있기까지 제게 건강과 능력을 주신 주님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 못난 언니를 위해서 고생한 동생 현화, 언제나 격려를 해주시던 교수님, 그리고 친구들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계속 공부에 정진하고 있는 복성, 영란, 성렬, 외숙언니와 고시반 후배들에게도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